

‘난생신화’와 ‘궤짝신화’의 상관성 고찰

- 석탈해신화 화소의 복잡함에 던지는 의문 -

양성필*

<차례>

1. 들어가는 말
2. ‘알’의 신화적 상상
 - 2.1 씨에서 출현한 생명
 - 2.2 알에서 출현한 생명
 - 2.3 세계의 탄생: 혼돈에서 질서로
3. ‘알’과 ‘궤짝’에서 등장한 영웅들
 - 3.1 卵生 : 신비한 출생과 출생의 비밀
 - 3.2 금궤, 석함 : 난생의 변형신화인가?
4. 맺음말

국문요약

우리의 건국신화에는 영웅이 알에서 태어난다는 ‘난생신화’가 심심찮게 등장한다. 우리의 신화 속에서 ‘알’은 어떤 의미일까? 신화에서의 알은 영웅의 기이한 탄생이 배경이 되는 화소로 여겨져 왔으며, ‘난생신화’는 ‘천강신화’와 더불어 건국신화의 중요한 한 유형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면서 통상 건국신화의 유형을 구분할 때, ‘천강신화’는 북방계의 신화이고, ‘난생신화’는 남방계의 신화인 것으로 이해하여 왔다.

본고에서는 우리 신화 속에서의 ‘알’의 의미를 생명의 탄생에 대한 고대인의 사유를 추론하여 고찰하였으며, 알에 내재된 생명의 탄생에 대한 원리가 천지

* 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박사과정

창조의 원리, 곳의 제의의 형태, 장묘의 형태, 신주단지과 같은 것에서 공유되어지는 개념일 것으로 추론하였다.

반면에 신화에서의 ‘궤’의 등장은 제주도의 신화를 고찰하여 볼 때, ‘영웅의 기이한 탄생’이라는 측면보다는 ‘존재의 변화’와 ‘공간의 수평적 이동’의 수단으로 화소가 적용되는 경향을 보게 된다. 이러한 ‘궤’라는 화소의 특징을 ‘알’이라는 화소와 구분지어 분석해 볼 때, 삼국의 신화에서의 ‘알’이라는 화소는 ‘천강신화’와 더욱 결합이 잘 되는 화소이며, 반면에 ‘궤’라는 화소는 ‘해양도래 신화’의 형태와 더욱 결합이 잘 되는 화소로 여겨진다. 이는 ‘궤’를 ‘알’의 변형된 형태로 보는 기존의 일부 해석과는 달리 ‘알신화’와 ‘궤짜신화’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독립된 화소일 것으로 추정되어지는 부분이다.

이러한 ‘천강신화’와 ‘해양도래 신화’ 그리고 ‘알신화’와 ‘궤짜신화’는 고대 신라의 신화에서는 단순하게 결합되는 것이 아니라, 다소 복합적인 결합을 통해 다양한 신화내용을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필자의 좁은 식견으로 인해 연구의 범위를 국내의 건국신화와 제주도의 신화에 한정 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화소의 형성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다 넓은 범위의 화소관찰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주제어 : 알, 알신화, 석함, 무쇄설갑, 궤짜신화, 천강신화, 난생, 향아리, 혼돈

1. 들어가는 말

신화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신화를 대할 때 신화의 탈사실성을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신화를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다¹⁾’라는 말은 신화의 속성을 비교적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는 건국시조 혹은 영웅이 알에서 태어난다는 ‘난생’신화를 이해함에 있어서는 더욱

1) 김열규, 『한국의 신화』, 일조각, 1976. p.138.

그 의미가 중요해진다. 인간은 당연히 알에서 태어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웅이 알에서 태어났다고 믿는 것은 그러한 신화를 만든 문화적 배경이 있는 것이며, 민중의 의도가 있는 것이다.

‘알’이라는 소재는 특히 고대 삼국의 건국신화에서 매우 중요시 다루어지고 있다. 건국시조가 ‘알’에서 태어난다는 의미의 기본은 ‘신이한 탄생’을 강조하는데 있을 것이다. 그런데 왜 그들은 하필 ‘알’에서 태어난 것일까? 신화에서 영웅의 신이한 탄생의 형태는 알이 아니어도, 옆구리에서 태어난다든가, 하늘에서 직접 내려온다든가, 특정 신의 후예라고 하든가, 동물의 자식으로 태어났다든가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그 중에서 알에서 태어나는 형태가 많은 것은 ‘알’에 대해 가지고 있는 한반도 지역에서의 특별한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

신화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논리적 연역만으로 입증해 낼 수는 없다. 또한 신화의 해석에서는 과학적 증거만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의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것이다. 김용옥은 신화의 내용이 사실이나 아니냐의 여부는 중요한 것이 아니며, 중요한 것은 왜 그런 식의 신화속의 이야기를 구성하게 되었는가하는 작자의 의도를 보아야한다고 하고 있다.²⁾ 물론 신화에서의 작자는 특정의 개인 작가가 아니라, 그 신화공동체의 선조라고 할 수 있는 불특정 다수를 지칭하는 것이며, 신화는 이 불특정 다수의 집단적 사유를 함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난생신화’에 대한 본격적인 고찰을 하기에 앞서, ‘알’에 대한 신화적 의미를 먼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알’에 대한 신화적 의미를 들여다보지 않고서는 건국시조의 기이한 탄생의 배경으로 왜 하필 ‘알’이라는 소재가 선택되었는지를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알’신화와 유

2) 김용옥, 『여자란 무엇인가』, 통나무, 1997, p.135.

사한 계열로 여겨지는 ‘궤짝’신화를 분별할 수 있는 의미적 차이가 무엇 인지를 설명하기도 어려워진다. 때문에 다소 논리적 어려움이 있지만, ‘알’이 내포하고 있는 신화적 의미를 고찰하는 것으로 ‘난생신화’의 해석에 출발점을 두려고 한다.

두 번째로 ‘난생신화’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부분은 ‘난생신화’와 ‘궤 짝³⁾신화’에 대한 상관성의 문제이다. 이 문제는 기존연구의 소략적 고찰을 살펴본 결과, 영웅의 탄생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공통점과 비교적 비슷한 지역에서 전해진다는 지리적 배경으로 인해 ‘궤짝신화’를 ‘난생신화’의 변형으로 취급해 버린 면이 없지 않아 보인다. 일일이 그러한 관점을 확인해나가지는 못했지만, ‘알’이 내포하는 의미와 ‘궤짝’이 내포하는 의미의 차이를 분석하고, 그 분포에 대한 의문을 다시 제기하면서, 두 개의 신화소가 다른 문화권에서 형성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고찰해 보려고 한다.

2. ‘알’의 신화적 상상

한반도에서 ‘알’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체(意味體)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서 잠시 논리적인 틀을 보류하고, 상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먼저 거론해 보려고 한다. 입증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또한 무시할 수만은 없는 많은 부분들이 개연적인 상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소설은 ‘소설분석의 문학적 방법’을 따라야 하고, 과학적 사실은 ‘인과의 법칙에 의한 과학적 실증의 방법’을 따라야 하듯

3) 여기서 궤짝이라는 것은 신화에서 상자의 형태로 신의 탄생 혹은 운반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궤, 함, 상자, 무쇄설갑 등을 모두 포괄하여 지칭하고 있다.

이, 신화의 이해는 때로 ‘신화적 상상력에 의한 사유의 방법’을 요구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부터는 잠시 과학적 사고에 의존하기보다, 고대인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자연을 다시 관찰해 보도록 하자. 도무지 그 방법이외에는 생명의 탄생과 죽음을 이해하고 극복하기 위한 고대인의 관찰과 논리를 찾을 도리가 없어 보인다. 고대인들은 생명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그 신비함을 이해하기 위해 그들만의 날카로운 관찰력으로 자연을 살펴보았을 것이다. 자연의 현상에서 생명의 탄생을 관찰하려 했다면, 그들의 눈에 먼저 포착된 것들이 무엇이었을까? 최초의 고대인들은 하늘과 땅과 바다라는 대 자연이 지속적으로 생명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상상을 했을 것이다. 하늘 저편에서 끊임없이 새들이 날아오고, 대지에서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식물들과 동물들이 출현하고, 바다에서는 아무리 잡아먹어도 새로운 물고기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이러한 대 자연의 위대함이 생명을 직접 만들어내고 있을 거라는 상상을 했을 것이다. 이러한 상상들은 온갖 천상의 세계와 바다건너 혹은 바다 속의 세계에 대한 신화를 낳았을 것이다.

그 다음단계에서는 인간이 발을 딛고 있는 현실, 즉 땅과 관련해서 상상하고 관찰하였을 것이다. 아마 이에 대해서는 상상에 의존해야 했던 하늘너머의 세계와 바다건너의 세계에 비해서 훨씬 더 과학적이면서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가까운 현실에서 그들이 쉽게 직접 관찰할 수 있었던 생명체의 탄생의 모습은 ‘알’과 ‘씨앗’의 형태에서 생명이 출현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분명 이 두 가지 형태는 생명의 출현을 직접적으로 관찰하고 확인할 수 있는 자연계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었으며, 고대인들은 생명의 출현을 이해하기 위해 지금의 과학자들이 자연계를 연구하는 것과 비슷한 태도로, 씨앗과 알에서 생명이 출현하

는 것을 유심히 살펴보았을 것이다.

2.1 ‘씨’에서 출현한 생명

씨앗에서 생명이 출현한다는 것은 농경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최초의 고대인들은 과일과 같은 자연물을 나무에서 직접 따먹는 수렵생활을 하다가, 과일이 땅에 떨어진 자리에서 새로운 생명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그들은 오랜 기간 동안 반복된 관찰을 통해서 과일이 썩어서 없어짐으로서 새로운 생명이 발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썩음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은 특히 농경민에게 있어서는 자연의 관찰에서 얻어진 보편적인 생명의 탄생원리라고 할 수 있다.

‘탄생’과 더불어 고대인들이 공통적으로 겪어야하는 감각적 충격의 한 형태는 ‘죽음’이었을 것이다. 종교라는 것이 인간이 능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인간에게서 죽음이란 종교를 형성시키게 된 중요한 동기가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당연히 슬픔으로 받아들이는 죽음이라는 현상이 고대인에게도 슬픔이었던지는 단언하기는 쉽지 않다. 에스키모인들은 부모가 고령화가 되면, 백곰의 먹이가 되게 일부러 백곰이 다니는 길목에 버리는 풍속이 있었다.⁴⁾ 물론 우리에게도 고려장이라는 풍속이 있었고, 몽고에도 나이 든 부모를 양의 기름을 먹여 죽이는 풍속이 있었다고 한다.⁵⁾ 만약 이러한 풍속들이 지금의 우리의 관념에 박혀있는 것과 같이 슬픔과 고통으

4) 김용욱, 상계서, p.186.

5) 이러한 풍속에 대하여는 몽골의 울람바트라 대학의 이안나 교수에게서 들은 바가 있다.

로 연상되는 죽음의 형태라면, 결코 이런 행위들은 성립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슬픔과 고통이 아니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오히려 죽음을 슬퍼하게 된 상례의 형태는 그리 역사적으로 오래된 것이 아님을 짐작케 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상례의 풍속은 여전히 남아있다. 축제⁶⁾라는 영화에서도 보여주듯이, 오늘날의 상례에는 술과 고스톱과 해학과 웃음이 이별의 슬픔과 함께 공존하고 있다.

하지만, 그래도 고대인들은 죽음을 극복하기 위하여 삶과 죽음에 대한 그들만의 세계관을 정립하여야 했을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집트의 피라미트과 같은 형태의 '불멸'을 추구하는 형태일 것이다. 죽은 후에도 삶이 계속된다는 믿음은 죽음을 두렵지 않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이다. '불멸'과는 달리 우리 문화권과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있는 삶과 죽음에 대한 관점은 '재생'의 형태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문화권의 대다수의 민족들이 다시 태어난다는 윤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죽음이 소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다시 생명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이러한 착상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일까? 분명 이러한 세계관도 죽음을 두려움과 슬픔이 아닌 축제의 장으로 승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고대인들은 자연현상의 무엇을 보고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일까?

죽음을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재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재생'이라는 착상을 정확하게 전해준 것이 과일이 썩어서 그 안에 있던 씨앗에서 새로운

6) 이정춘의 소설을 영화화한 임권택 감독의 영화로 우리의 상례문화가 슬픔이 아닌 축제의 장임을 사실적 묘사를 통해 보여주고자 한 작품이다. 1996년 개봉.

과일나무가 자라남을 보여준 대자연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과일을 썩게 만들어준 것이 흙이며, ‘인간은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이런 농경적 원리를 담은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우리는 시신을 처리함에 있어서 ‘매장’의 방법을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것도 이러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⁷⁾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처리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역시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흙에 묻는 형태이다. 이는 흙에서 온 인간을 흙으로 돌려보낸다는 의미도 있지만, 재생을 기원하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치 과일을 땅에 묻으면 다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흙에는 죽음을 삶으로 승화시키는 힘이 있으므로 시신이 썩음으로서 새로이 이 세상으로 환생할 것을 기원하는 고대인의 바람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죽음을 슬픔이 아닌 기쁨으로 승화하고 있었다고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초분의 모습



골호(뼈단지)

7) 장철수, 『옛무덤의 사회사』, 웅진, 1995, p.92.



부도



봉분(아라동소재)

시신을 적극적으로 썩게 하여 처리하였던 방법으로 ‘초분’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육체를 땅위에 두고 풀과 같은 것을 덮어서 2~3년을 썩힌 후에 뼈만을 추려내어 장례를 치르는 방법이다. 또한 불교적 영향을 받은 ‘화장’ 역시 육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인데, 화장 후 뼈를 추려 넣는 골호(뼈단지)가 통일신라시대에 이미 있었으며,⁸⁾ 이 장법이 후에 부도의 형태로 발전했다는 것도 의미가 있어 보인다.

‘씨’에서 이해한 생명관은 이러한 장법(葬法)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며, 이 장법에는 ‘육체의 썩음’을 통해 ‘재생’을 회구하는 농경민의 오래된 관념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념을 거론하는 것은 ‘씨’에서 볼 수 있는 ‘생명’에 대한 관념을 ‘알’에서도 볼 수 있으며, 이 ‘씨’와 ‘알’은 생명에 대한 비교적 상통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씨’에서 볼 수 있는 썩음으로부터의 재생이라는 개념이 ‘알’에서도 상통하는 생명관으로 여겨질 수 있는지를 개연적 수준에서 고찰을 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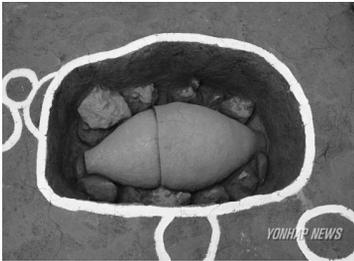
8) 장철수, 상계서, p.83, p.156.

2.2 ‘알’에서 출현한 생명

수렵하던 시절의 고대인들이 관찰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생명의 비밀’을 파악할 수 있었던 현상은 ‘알에서 생명이 태어나는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 실제 고대인들은 생명이 태어나는 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많은 알들을 깨어보았을 것이다. 흰자와 노른자만이 있는 달걀속의 형태에서 날개와 다리가 있고, 눈과 부리가 있는 병아리가 태어나는 모습은 그들이 가장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생명의 탄생 과정이었을 것이다. 그들은 이를 통하여 무엇을 보고, 무엇을 해석해 내었을까?

그들이 볼 수 있었던 것은 분화되지 않은 혼돈의 상태에서 시작하여 서서히 눈과 부리, 그리고 날개와 다리가 형성되면서 신체가 분화되어 가는 과정이었을 것이다. 처음에는 모든 게 섞여있었는데, 점차 질서가 생기고 정리되어가는 모습인 것이다. 미분화상태의 ‘알’상태에서 분화되어진 ‘생명’의 상태로의 변이과정은 ‘썩음’에서 ‘생명’으로의 변이과정을 보여주는 ‘씨’를 통한 생명의 탄생원리와 유사한 개념을 보여주었을 것이다.

무덤의 형태와 죽음에 대한 의례는 죽음과 함께 삶에 대한 고대인의 회구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불멸의 세계에 대한 회구’와 ‘왕의 재림’을 기원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봉분이라는 것도 죽음이라는 인생의 끝과 함께 삶의 시작이라는 ‘탄생의 원리’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은 막연한 추론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신라의 천마총에서 달걀이 껍데기 물품으로 발견된 것은 이러한 믿음의 하나로 여겨진다. 즉 고대의 신라인들이 생명의 원리를 알에서 찾았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삼양에서 발굴된 탐라국 옹관묘



천마총에서 발굴된 깨문기물품인 달갈

‘알’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무덤의 형태로 옹관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옹관묘는 삼국시대와 탐라국 시대에 어린아이의 시신을 항아리에 넣고 묻는 장법의 하나로, 항아리에 웅크린 어린아이의 모습은 마치 태중의 아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의 항아리는 어린아이의 생명의 근원지였던 여성의 자궁을 형상화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장묘문화가 갖는 재생이라는 기원을 담고 있는 것이다. 여성의 자궁에는 생명을 만들어내는 힘이 있을 것으로 여겼을 것이며, 이를 신성시하는 것은 지모신앙을 형성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우리의 민간신앙에서 보이는 ‘시주단지⁹⁾’라는 것이 있는데, 단지 속에 통상 쌀을 넣어서 안방에 신주로 모시는 풍속이 있다. 시주단지는 항아리에 쌀을 넣어둔 형태인데, 장주근은 <김알지신화>의 ‘알지’의 ‘알’이 ‘곡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그는 그 근거를 시주단지에 쌀알 즉, 알곡을 신의로 사용한다는 점을 근거로 한 三品彰英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김병국은 건국신화에서 알은 새를 전제로 한 것이며, 새라는 것이 곡모(穀母)의 사신으로, 농작물 성장의 징조로 나타나는 것에 주목하여, 알이 농경문화와 관련이 있음을 유

9) 혹은 ‘시조(始祖)단지’라고 표기하기도 한다.

도하고 있다.¹⁰⁾ 이와 더불어 여기서 또 하나의 가능성으로 거론하고자 하는 것은 시주단지에 사용되는 ‘항아리’의 ‘아리’가 ‘알’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시주단지의 형상은 ‘쌀을 알에 넣은 형태’이며, ‘알’이 갖고 있는 ‘재생의 힘’으로 쌀의 생명력을 보존하려는 의지이며, 이는 어린아이의 시신을 태중에 넣음으로써 재생을 기원하는 용관묘의 원리와 같은 의미가 아닐까?

물론 항아리는 세계적으로 널리 분포되어진 생활용구이며, 그 형태도 둥그스런 형태를 가장 많이 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하게 우리가 사용하는 항아리의 용례를 보면, 시주단지와 같은 신체(神體)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물론이며, 장독대와 같은 곳은 여성들의 정화수를 떠 넣고 기원을 올리는 장소로 오랫동안 이용되어 왔다. 그동안 민간신앙의 형태에 대한 여러 연구가 있어왔지만, 항아리를 신체로 사용하는 이유에 대한 의미적 해석을 밝히는 것을 확인 할 수 없었다.

박용숙은 맛의 기본이 되는 메주를 통해서 장을 만들어내는 용기로서 장독과 장독대를 신성시하였다는 견해를 제시한다.¹¹⁾ 그는 삼국시대에 귀족들이 모셨다는 ‘부루단지’라는 것의 명칭을, 단지라는 것이 여러 가지 물질이 들어가 섞여서 제3의 맛을 만들어내는 용광로와 같다고 비유하기도 하고, 제례용 술을 담근다는 의미에서 항아리의 신성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¹²⁾ 술을 포함하여, 간장, 된장, 김치 등의 발효식품이라는 것은 항아리에서 오랜 시간을 두고 삭혀서 맛을 내는 음식이며, 항아리를 신체로 여기는 것이 이러한 ‘재생력을 가진 힘’을 숭배하는 것에서 출발한 것으로 여길 수 있으며, 이는 알이 갖고 있는 ‘생명을 만드는 힘’

10) 김병국, 『박혁거세신화의 상징연구』, 성균관대학교, 국문학 석논, 1984, p.55.

11) 박용숙, 『한국의 미학사상』, 일월서각, 1991, p.31.

12) 박용숙, 상계서, pp.39-41.

과 개념을 공유하는 것이 아닐까?

2.3 세계의 탄생: 혼돈에서 질서로

<천지왕본풀이>를 보면, 맨 처음 세계의 탄생을 혼돈의 상태에서 하나씩 분화되는 모습으로 진행되었음을 표현한다.

태초에 천지는 혼돈으로 있었다. 하늘과 땅이 금이 없이 서로 맞붙고, 암흑과 혼합으로 휩싸여 한덩어리가 되어있는 상태였다. 이 혼돈 천지에 개벽의 기운이 돌기 시작했다.. 하늘의 머리가..열리고, .. 땅의 머리가 열려 하늘과 땅 사이에 금이 생겨났다. 이 금이 점점 벌어지면서 땅덩어리에는 산이 솟아오르고 물이 흘러내리곤 해서, 하늘과 땅의 경계는 점점 분명해져갔다.¹³⁾

모든 질서가 섞여진 혼돈의 상태, 이는 제의의 중요한 원리라고 할 수 있다. 김태곤은 굿의 원리를 혼돈의 상태를 추구한다고 주장하였다. 제의가 이루어지는 공간과 시간은 ‘일상적인 세속의 공간과 시간’ 밖에 있고, 그렇게 세속의 밖에 있는 공간과 시간은 ‘세속 이전의 공간과 시간’-하늘과 땅이 생기고, 그 하늘과 땅이라는 우주 안에 인간이 살기 시작한 그 태초 이전의 어둠인 혼돈, ‘카오스’의 상황-이 된다는 것이다.¹⁴⁾ 또한 그는 이러한 미분성에 기반을 둔 사고가 세계 창조에 관한 원리 및 무속의례의 기본적 형식이 되고 있다고 하고 있다.

김상일은 태초의 무분별적 의식상태가 상징으로 표현된 것을 우로보로스라고 하는데, 우로보로스는 뱀이 자기 입으로 자기꼬리를 물고 있

13) 현용준, 『제주도 신화』, 서문당, 1996, p.1.

14) 김태곤, 『무속과 영의 세계』, 한울, 1993, p.113.

는 둥근 원환을 이루고 있는 모습이며, 이러한 상징을 우리나라의 고신라시대를 포함하여 전 세계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이러한 우주적 원형을 ‘알’로 보았다고 주장한다.¹⁵⁾



굿판: 성스러운 공간



우로보로스의 형태: 미분적사고

<천지왕본풀이>에서의 태초의 세상에 대한 묘사는 ‘씨’와 ‘알’에서 유추한 ‘생명의 탄생 과정’과 동일한 원리를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미분화된 태초의 세계의 모습은 씨앗이 흙과 섞여 썩은 상태이며, 달걀속의 존재가 액체상태의 미분화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 주목하는 것은 ‘알’ 신앙에는 고대인의 세계관인 ‘혼돈에서 질서로의 세상의 탄생’에 대한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생명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져서 시주단지, 항아리, 옹관묘 등에서 상징적인 연관성을 볼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추론이다. 이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논증으로의 진전을 이루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신화에서 ‘알’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에 대하여, ‘난생’이라는 것이 영웅의 기이한 탄생만을 상징하기 위한 화소가 아니라, ‘생명’에 대한 보편적 고대인의 사유를 간직하고 있는 흔적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15) 김상일, 『카오스와 문명』, 동아출판, 1995, pp.75-77.

3. ‘알’과 ‘궤짝’에서 등장한 영웅들

역사학자 김정학은 고구려의 왕권신화가 북방의 ‘태양숭배사상’과 남방의 ‘난생신화’가 결합된 것으로 해석하였다.¹⁶⁾ 김상일에 의하면 그 자신은 수긍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의 건국신화는 ‘천강신화’와 ‘난생신화’가 있는데, 대개 한국의 종교학자들은 천강신화는 북방계 신화로 난생신화는 남방계 신화로 취급되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한다.¹⁷⁾ 본고에서 이러한 학계의 주장을 답습할 필요는 없지만, ‘난생’을 다루는 것은 ‘천강’과 더불어 건국시조의 유래를 설명하는 건국신화의 큰 축의 하나를 다루고 있음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장주근에 의하면, 학계에서 보편적으로 취급되고 있는 난생신화가 전해지는 문헌신화는 고주몽, 박혁거세, 석탈해, 김수로의 네 개의 신화가 있으며, 난생신화의 변형으로 취급되고 있는 김알지 신화가 있다고 한다.¹⁸⁾ 이 신화는 모두 고구려, 신라, 그리고 가야라는 고대국가의 신화이며, 그 다음세대인 고려신화에서부터는 건국신화의 신화로서의 신비감이 약화되면서 난생에 의한 건국신화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난생신화를 건국신화의 큰 축의 하나로 볼 수 있는 것은 단지 네 개의 난생신화에 국한하여 ‘난생’을 말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때문에 김알지신화처럼 난생에서 변형되었다는 화소의 변형에 주목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장주근은 김알지가 알이 아닌 금빛 궤짝에서 출현하는데, 여기서의 금빛 궤짝이라는 것이 알의 변형된 형태일 것이라고 보고

16) 노성환, 『한일왕권신화』, 울산대출판부, 1995, p.117.

17) 김상일, 전계서, p.391.

18) 장주근, 『한국신화의 민속학적 연구』, 집문당, 1995, p.113.

있다. 본고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퀘짜신화’라는 것이 ‘알신화’의 변형된 모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를 따져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퀘짜를 알의 변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알신화’가 남방계의 분포를 가지고 있는 것과 ‘퀘짜신화’가 남부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점에서의 지리적 배경의 유사함과, <김수로신화>, <석탈해신화>에서처럼 퀘짜와 알이 결합된 형태가 신라와 가야의 신화에서 나타난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처음에는 난생의 전형적이고 직접적인 형태를 고찰을 해보고, 다음에는 변형으로 볼 수 있는 ‘퀘짜신화’들의 형태를 살펴봄으로써 ‘난생’이 갖고 있는 특징과 그 변형된 신화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지를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3.1 卵生 : 신비한 출생과 출생의 비밀

역시 대표적인 난생신화는 주몽신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주몽신화는 해모수에 의한 ‘친강신화’와 유화와 주몽에 의한 ‘난생신화’가 결합돼 있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주몽신화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유화가 직접 알을 낳은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삼국사기>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 그녀에게 햇빛이 비치는데 몸을 피하자 햇빛이 또 따라오면서 비추었다. 이 때문에 임신하였고, 알을 낳으니 크기가 닭 되쯤 되었다.¹⁹⁾

<삼국사기>에서는 유화가 알을 낳는 것으로 되어있고, <삼국유사>에 표현되는 바도 난생의 대목은 거의 다르지 않다.²⁰⁾ 이 대목이 같은

19) 이지영, 『한국건국신화의 실상과 이해』, 월인, 2000, p.161.

것은 <삼국유사>가 <삼국사기>를 참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이지영이 <동명왕편>을 번역한 것에 의하면 주몽의 탄생과정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신작 계해여름 4월에 주몽을 낳았는데, 우는 소리가 매우 크고 골격과 모양이 뛰어나고 기이하였다. 처음 낳을 때는, 왼쪽 겨드랑이에서 알 하나를 낳았는데 크기가 닷 되들이만 하였다.²¹⁾

다음으로 혁거세신화에서 '난생'과 관련된 대목을 살펴보자. <삼국유사>에 수록된 혁거세 신화를 보면 다음과 같이 '알'이 하늘로부터 전해져오는 형태를 하고 있다.

양산아래 나정이라는 우물가에 번개빛처럼 이상한 기운이 하늘로부터 땅에 비치고 있었다. 거기에는 흰말 한 마리가 꿰어 앉아 절하는 형상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곳을 찾아가 보니 한 붉은 알 한 개가 있었다. 말은 사람을 보고 길게 울더니 하늘로 올라갔다. 알을 깨고 어린 남자 아이를 얻었는데...²²⁾

한국의 건국신화의 유형을 크게 '천강신화'와 '난생신화'로 통상적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혁거세의 출현은 '천강'과 '난생'이라는 두 가지의 소재가 결합되어있다. 그것은 <주몽신화>의 경우 해모수에 의한 천강적 요소와 유화에 의한 난생적 요소를 구분하여 두 개의 독립된 신화가 결합된 형태로 이해 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른 상황이다. <혁거세신화>에서의 '하늘에서 내려온 알'이라는 화소는 결합된 신화

20) 이지영, 상계서, p.168.

21) 이지영, 전계서, p.193.

22) 이지영, 전계서, p.293.

라기보다는 그 자체가 천강신화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 <혁거세신화>와 <주몽신화>의 ‘난생’에 있어서의 차이를 보면, <혁거세신화>에서의 알은 발견되는 형태로 나타나며, 직접 낳는 형태는 나타나지 않는다.

왕을 잉태한 알이 어떻게 등장하는 지를 좀 더 살펴보자. 다음은 <김수로신화>에서 알이 등장하는 부분이다.

.. 자주색 줄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땅에 닿고 있었다. 그 줄 끝 아래로는 붉은 보자기에 싸인 금빛 상자가 보였다. 그 상자를 열어보니 거기에는 해와 같이 둥근 황금알 여섯 개가 있었다. 23)

<김수로신화> 역시 하늘에서의 천강의 모습과 난생의 모습이 결합된 형태의 신화라는 점에서 <혁거세신화>와 비슷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 신화에서도 역시 알을 낳는다는 이야기는 언급되지 않고 있으며, 신비한 황금알은 발견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해서 볼 것은 황금알이 황금상자에 담겨진 채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이다. 이는 ‘알’과 ‘궤’가 공존하고 있는 신화의 형태로, 궤에서 영웅이 등장한다는 화소를 ‘난생신화’와 맥을 같이하여 볼 수 있는 이유를 제공하고 있다.

다음에는 <석탈해신화>에서 ‘알’이 신화 속에 어떻게 등장하는 지를 보자.

배에는 길이가 20척이고 너비가 13척인 궤짝이 하나 놓여 있었다. ... 나는 본래 용성국 사람입니다. ... 아버지는 아들이 없어 신사에 기도하여 자

23) 이지영, 전계서, p.321.

식을 구했는데, 7년 뒤에 큰 알을 낳았습니다. .. 퀘짜를 만들어 나를 앉히고 칠보와 노비를 함께 실어 바다에 띄웠습니다. ...²⁴⁾

<석탈해신화>에서는 <주몽신화>에서와 마찬가지로 알을 ‘직접 낳았다’는 화소가 등장한다. 그리고 알을 퀘짜에 넣어 통치할 수 있는 세상으로 보내졌다는 것은 <김수로신화>의 ‘알’과 ‘퀘’가 동시에 등장하는 화소와 구조가 동일하다. 또 알에서 태어난 존재가 동자의 모습으로 바뀐 후에 퀘짜에 놓여지는 것은 <김알지신화>의 화소와 구조가 동일하다. 즉, <석탈해신화>를 보면 그 화소가 <주몽신화>에서 <박혁거세신화> 그리고 <김알지신화>까지의 영웅의 출생의 배경에 있어서 상호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탈해신화>의 독자성은 <주몽신화>, <혁거세신화>, <김수로신화>가 ‘난생신화’이면서 ‘천강신화’의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 반해, <석탈해신화>는 바다에서 퀘짜이 배에 실려 들어온다는 수평적 구조의 ‘해양도래신화’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영웅의 도래의 배경이 하늘에서 오는 것과 해양에서 오는 것은 신화내용의 기본구조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 문화적 배경이 같지 않음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다.

이상과 같은 ‘난생신화’들의 알과 관련한 탄생배경을 놓고 화소의 비교를 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을 것이다.

24) 이이화, 『한국사이야기 2권-고구려,백제,신라,가야를 찾아서』, 한길사, 1998, p.115.

신화의 이름	알의 출현	알의 유래	알의 이동수단	궤에 담긴 존재	영웅의 등장
주몽 신화	직접 낳음	천신+지신	x	x	알에서 태어난다.
혁거세 신화	알을 발견함	하늘에서 음	흰말	x	알에서 태어난다.
김수로 신화	알이 든 궤를 발견함	하늘에서 음	자주색줄 + 황금궤	여섯 개의 알	궤에서 알의 모습으로 발견된다.
석탈해 신화	동자가 든 궤를 발견함	바다에서 음	배+궤짝	알에서 태어난 동자	알에서 태어난 후 궤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화소의 변화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난생’을 배경으로 신화의 내용을 구분하여 본다면, 1) 알을 왕의 어머니가 직접 낳는다; <주몽신화>, <석탈해신화>. 2) 알을 발견 한다; <혁거세신화> 3) 궤 짝에서 알을 발견 한다; <김수로신화> 4) 궤짝에서 동자를 발견 한다; <석탈해신화>’ 라는 네 가지의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특히 <김수로신화>와 <석탈해신화>는 알과 궤가 하나의 신화에서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화소로 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화소의 상관성은 ‘알’과 ‘궤짝’이라는 것이 동일한 신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모티프임을 추측할 수 있게 하는 것이며, 이런 연유로 ‘난생신화’의 범위가 더욱 광범위하게 거론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하지만, ‘알’로 태어나는 것과 ‘궤짝’에서 발견되는 것이 동일한 구조라고 보는 것이 성급한 결론은 아닐까? ‘알’과 ‘궤’를 직접적으로 연관시키는 것이 혹 논리적 결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난생’과 ‘궤짝’이 신화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궤=알’이라는 관계가 성립될지는 다소 의문스럽다. 하나는 ‘알’과 ‘궤’가 서로 대리적 관계라고 한다면, 한 화소의 등장은 다른 화소를 불필요하게 다룰 텐데, ‘알이 궤짝에 담겨오는 신화’가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의문점은 <김수로신화>와

<석탈해신화>가 ‘궤’와 ‘알’이라는 화소를 동시에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김수로신화>는 ‘천강신화’의 배경을 가지고 있고, <석탈해신화>는 ‘해양도래신화’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혹시 이제까지 궤를 알의 변형으로 본 것과는 달리 ‘궤짝신화’가 ‘난생신화’와 다른 문화적 배경과 분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는 궤짝에서 발견되는 동자의 이야기가 제주도의 무속신화에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궤짝신화’라는 것이 남방계적인 형태가 아닌가를 추측을 해본다. 이는 다음 장의 난생의 변형신화라고 하는 <김알지신화>와 제주도의 ‘궤짝신화’들을 다루면서 다시 고찰을 해 보겠다.

3.2 금궤, 석함 : 난생의 변형신화인가 ?

<석탈해신화>를 예를 들면서 ‘궤짝에서 발견되는 동자’라는 화소는 ‘난생’의 변형된 모습일 것으로 추론하였었다. 이러한 ‘난생’의 변형이 처음 나타나는 것은 <금와신화>라고 할 수 있다. 금와는 곤연이라는 연못의 큰 돌 밑에서 발견되었다. 금빛개구리라는 금와의 명칭과 연못의 큰 돌 아래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은 ‘난생’을 암시하는 대목이라고 통상적으로 해석한다. 또한 여기서의 ‘난생’은 물과 관련된 것으로 엄연히 해모수의 ‘천강신화’와는 배경을 달리한다. 하지만 역시 <금화신화> 역시 <주몽신화>와 마찬가지로, ‘난생’을 암시하기는 하지만, ‘궤짝’이라는 화소와는 거리가 멀다.

본격적으로 ‘궤’에서 영웅이 나타나는 신화의 형태는 앞장에서 거론한 <석탈해신화> 이외에도 <김알지신화>가 있다. <김알지신화>에서의 영웅은 나뭇가지에 걸린 ‘궤’에서 발견되는 화소로 나타나며, ‘알’이라는 화소는 등장하지 않는다.

탈해왕 9년 3월에 왕이 밤중에 금성(金城) 서쪽 시림(始林) 숲속에서 ... 금빛의 작은 궤짝이 나뭇가지에 달려 있고 ... 궤짝을 가져오게 하여 열어 보니 조그마한 사내아이가...그 이름을 알지라 하였다. 또, 금빛 궤짝에서 나음을 연유로 하여 성을 김씨라 부르고, .. 25)

<김알지신화>를 ‘난생’의 변형으로 보는 것은, 김알지가 발견된 ‘궤’를 ‘알’과 동일한 모티프로 인식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장주근은 <김알지신화>의 ‘황금궤’는 시조단지신앙이 전승되는 지역에서 생긴 신화라고 한정하여 주장하고 있으며, ‘황금궤’는 시조단지를 신화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구분하고 있다.²⁶⁾ 다만, 장주근이 현장에서 본 바와 같이 시조단지신앙과 <김알지신화>의 분포가 영남지역에서 일치되고 있는 개연성이 확인되었다면,²⁷⁾ 기존의 ‘알’과 ‘궤’에 대해 당연시하였던 신화적 연관성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김현선은 <바리데기신화>에서 바리공주가 버려지는 옥합상자를 저승과 이승을 넘나드는 말명상자로 이해하였다. 그리고 바리공주의 저승 여행은 수평적 세계관에 입각한 것이라고 보았다.²⁸⁾ 그렇다면, 궤의 형태라는 것은 신화에서 주로 수평적 이동을 위한 수단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오히려 <김수로신화>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황금상자라는 것이 ‘천강신화’와 결합되어지는 변형된 형태인 것은 아닐까? <김알지신화>에서의 ‘궤’는 어떤 이동 경로를 전제한 것일까? 여기에서는 수직적 이동을 전제한 것인지, 수평적 이동을 전제한 것인지 신화의 내용으로는

25) 인용된 김알지신화의 내용은 《삼국사기》 신라본기 탈해이사금조(脫解尼師今條)에 수록된 내용을 인터넷자료에서 옮긴 것임.

26) 장주근, 전게서, pp.108-109.

27) 장주근, 전게서, p.113.

28) 김현선, 『저승을 여행하는 여신연구』, 『비교민속학』 33집, 2007, p.162, p.167.

분명하지 않다.

여기에서 드러난 ‘궤’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주도의 본풀이와 연관 지어서 논의 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제주도에서는 ‘황금궤’는 등장하지 않지만, ‘석함’과 ‘무쇄설갑’ 등의 ‘궤’와 연관되는 소재는 신화에서 종종 나타난다. 필자가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본다면 <삼성신화>와 <송당당신본풀이> 및 <궤네깃또본풀이>, <칠성본풀이>²⁹⁾ 등에서 등장하고 있다. 차후 다시 논의하겠지만, <김알지신화>의 황금궤는 <궤네깃또본풀이>에서의 무쇄설갑과 비교될 수 있으며, 이는 수직적 도래의 구조보다는 수평적 도래의 구조라고 이해 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제주의 신화를 보면, 외부에서 신이 도래하는 형식이 아닌 땅에서 솟아나는 토착신이 모습을 간과할 수 없으나, 여기서는 ‘궤’의 형식을 통해 신이 등장하는 화소에 제한하여 논의를 하기로 한다.

제주도에서는 ‘알신화’를 찾아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궤’와 관련한 신화의 지역적 분포는 다양하고 분명해 보인다. 특히 시조신화인 <삼성신화>와 제주당신의 중요한 계열을 형성하고 있는 <송당당신본풀이>에서의 ‘궤’의 등장은 이 화소가 매우 고대적인 것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제주의 시조신화라고 할 수 있는 <삼성신화>에서는 벽랑국의 공주가 ‘석함’에 실려 제주에 표착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는 또 바다너머의 존재가 궤에 담겨 도래한다는 점에서 <석탈해신화>와 같은 화소를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 그렇지만 석함에 실려 온 이는 왕이 아니라 왕의 배필 즉, 여성이 도래하는 것으로 <석탈해신화>와는 또 다른 상황을 보여준다. 이는 ‘궤에 실린 영웅’의 이야기가 ‘난생’의 변형으로 보았던 것과는 다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삼성신

29)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2002. p.375 ; 칠성본풀이는 다양하게 전해지고 있으나, 궤가 등장하는 칠성본풀이는 제주시 칠성통과 관련된 본풀이임.

화에서 벽랑국의 공주들은 신적 존재라고 할 수는 있지만, 통치의 개념을 갖는 영웅의 모습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 육지부에서 지속적으로 ‘남성영웅’의 배경이 되었던 ‘궤’라는 소재가 여기서는 ‘여성신’의 출현배경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신화적 내용의 간극은 ‘궤’가 ‘알’의 변형일 것이라는 기존의 추론과는 달리, ‘궤’의 화소가 ‘알’의 화소와는 별개로 존재하였던 것이 아닐까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 이를 위해서 제주에 있는 몇 개의 신화를 더 살펴보자. 제주에서는 ‘궤’가 등장하는 일반신본풀이는 <칠성본풀이>에서 볼 수 있다. 진성기가 채록한 제주도의 <칠성본풀이>를 보면,³⁰⁾ 부모에 의해서 석함에 버려진 애기씨가 뱀이 되어서 발견되는 형태로 나온다. 제주는 본래 뱀에 의한 신앙이 타 지역에 비해 독특하고 또 그 범위가 넓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칠성본풀이>에서 석함에 버려진 존재는 육지부의 ‘알에서 태어난 영웅적 남성’과는 전혀 거리가 먼 ‘원혼을 가진 여성’의 모습이다. 신화의 내용으로 볼 때 <칠성본풀이>는 육지부의 ‘난생신화’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반면에 <칠성본풀이>에서의 석함은 <삼성신화>의 석함과 비교하여 본다면, ‘신격존재의 이동’과 ‘새로운 존재로의 변화’³¹⁾이라는 기능적인 의미를 공유하고 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제주의 신화는 제주의 본향당신본풀이의 하나인 <궤네깃당 당신본풀이>³²⁾이다. <궤네깃당 당신본풀이>³³⁾에서

30) 육지부의 칠성풀이와 제주도에서의 칠성본풀이는 내용이 전혀 다르다.

31) 알이 갖는 역할이 ‘영웅의 탄생’이라는 것과 대비하여 ‘새로운 존재로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궤에 의해 이동한 신은 공간적 이동의 전과 후의 삶이 신화에서 다르게 전개된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다.

32) 송당계열의 본풀이이므로, 당연히 송당당신본풀이를 먼저 분석하는 것이 옳으나, 무쇄설갑이라는 화소는 궤네기와 관련된 화소이므로, 궤네깃당 당신본풀이를 사례로

는 소천국이 자식인 케네깃또가 버릇없이 굴자 ‘무쇄설갑’에 담아서 동해바다에 띄워버리게 되고, 요왕국의 무우남 가지에 걸린 ‘무쇄설갑’을 요왕의 막내딸이 열어 부부가 된다는 화소가 나온다. 이는 용성국의 왕자인 석탈해가 알로 태어난 것이 기괴하다고 하여 궤짝에 실려 버려졌다는 화소와 비슷한 내용으로, 궤의 이동 경로가 석탈해는 타지(他地)에서 내지(內地)로, 케네깃또는 내지에서 타지로 이동방향이 다른 뿐 ‘버려진 존재로의 이동과 영웅의 등장’이라는 공통적인 화소를 가지고 있다. 즉, <케네깃또 당신본풀이>에서의 무쇄설갑과 <석탈해신화>의 궤짝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금성산 시림숲속의 나뭇가지에 걸린 채로 발견된 <김알지신화>의 황금궤짝과도 그 성격이 유사하다. 신라와 가야의 시조신화가 탐라의 ‘시조신화’와 화소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의 ‘당신본풀이’와 화소를 공유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암시를 주고 있다. 특히 <석탈해신화>는 육지부의 ‘알신화’와 제주도의 ‘무쇄설갑신화’가 결합된 형태가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궤 속에 넣어져서 타지로 이동 한다’는 화소는 송당계열 당신본풀이에서 공유하고 있는 것이며, <칠성본풀이>, <삼성신화>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공간적 이동’과 ‘존재의 변화’를 일으키는 수단으로서의 ‘석함, 무쇄설갑’의 용례는 폭넓은 분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궤’의 상징적 기능은 일면 ‘알’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기능과도 근본적으로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의 본풀이에서 ‘난생’이라는 직접적인 화소가 거의³⁴⁾ 보이지 않는 것은 왜 그

든다.

33) 현용준, 『(개정판)제주도무속자료사전』, 각, 2007, p.552.

34) ‘거의’라고 한 것은 필자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확인할 수 없으나, 혹 그런 신화가

런 것일까? 만약 ‘궤’ 혹은 ‘석함’이라는 것이 ‘난생’의 변형된 모습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민간신앙의 일부에서라도 ‘난생신화’의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함이 당연하지 않을까?

앞 절에서 ‘난생’을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보았었다. 그것은 ‘궤’라는 것을 ‘알’의 변형된 형태라는 것을 전제하여, ‘난생신화’의 전체적인 틀을 하나로 이해해 보려고 한 것이었다. 하지만, 다시 ‘난생신화’를 들여다보면, 황금궤짝에 의해 등장하는 <석탈해신화>를 제외하고는 대개 천강신화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석탈해신화>를 비롯해 제주에서의 ‘궤짝신화’를 보면, 궤의 등장은 해양과 관련한 수평적 이동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궤’와 ‘석함’의 분석을 통하여 드러나는 형태는 ‘난생신화’와 ‘궤짝신화’는 신화적 배경을 달리하고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있다. 이제까지의 ‘난생신화’를 남방계신화로 볼 수 있는 것은 제주에서 등장하는 ‘석함, 궤짝신화’를 ‘난생신화’의 변형으로 인정할 때 어느 정도 가능한 주장으로 볼 수 있다. 만약 이 두 가지 신화유형이 그 발생에 있어서 동일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난생신화’의 분포범위는 축소되겠지만, ‘석함, 궤짝신화’의 분포는 ‘난생신화’보다 더 남방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볼 때 ‘난생’이라는 것은 오히려 북방계의 수직적 서사구조를 가지고 있는 ‘천강신화’와 잘 결합될 수 있는 화소이며, ‘궤짝’이라는 것은 수평적 ‘해양도래 신화’적 요소를 함의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된다.

제주에 없으란 법은 없으므로, 일단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맺는말

‘난생신화’는 ‘천강신화’와 더불어 고대 삼국시대의 건국시조의 유래를 설명하는 하나의 큰 축을 이루고 있다. 본고에서는 신화의 내용분석보다는 ‘난생신화’에서 영웅의 탄생을 위한 화소로 등장하는 ‘알’의 신화적 의미를 고찰하였으며, 또한 ‘알’의 변형으로 보이는 ‘궤짝’에 의한 영웅의 등장에 대하여 신화의 배경을 비교하여보고, 그 상관성을 고찰하여 보았다. 이상의 신화적 상상에 의존한 ‘알’의 의미고찰과 ‘난생신화’와 ‘궤짝신화’의 배경적 비교를 통해 다음과 같은 잠정적 결론에 이를 수 있었다.

첫째, ‘알’이 내포하는 의미 속에는 기본적으로 생명의 탄생원리에 대한 고대인들의 이해를 담고 있다고 여길 수 있는데, 그 의미를 확장하여 본다면, ‘알’에는 생명의 탄생원리뿐만 아니라, <천지왕신화>에서 보여지는 ‘혼돈에서 질서의 창조과정’이라는 세계관과 연관지어볼 수 있지 않을까 여겨진다.

둘째, ‘난생신화’의 변형 형태로 여겨지는 ‘궤짝신화’를 고찰하여본 결과, ‘알’과 ‘궤짝’은 그 의미와 기능이 유사한 점도 없지는 않으나, 동일한 계열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잠정적인 결론이다. 본고에서 고찰한 바로는 ‘알’이 영웅의 기이한 탄생을 위한 화소로 국한되어 등장하는 반면, ‘궤짝’은 전반적으로 ‘존재의 변화’와 ‘공간적 이동’의 수단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석탈해 신화>에서 알에서 태어난 탈해가 배에 태워져 황금궤짝에 실려 오는 이야기는 해양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수평적 이동을 보여주며, <김수로신화>에서는 하늘에서 궤짝이 내려오

는 형태인데, 이는 수직적 ‘천강신화’와 수평적 ‘해양도래 신화’가 ‘알신화’와 ‘궤작신화’와 결합하면서 복합적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반적인 고찰한 바에 의하면 ‘알신화’는 천강계열의 수직적 구조와 잘 결합되고 있으며, ‘궤작신화’는 해양적 배경을 갖는 수평적 구조와 잘 결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이러한 상황에서 <김알지신화>는 ‘난생신화’의 변형이라고 보기 보다는 ‘궤작신화’의 영향이 더 강한 신화라고 독립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고대 신라의 문화는 북방의 ‘천강신화’와 남방의 ‘해양도래 신화’가 만나고 결합되는 과정에서 ‘알신화’와 ‘궤작신화’가 복합적으로 결합되면서 다양한 신화패턴을 만든 것이 아닐까 추론하여 볼 수 있다.

이상의 건국신화를 배경으로 하는 ‘알’과 ‘궤’에 관한 고찰은 신의 도래형식과 연관하여, 한정적으로 바라본 것이며, 때문에 신화 전반의 내용에 대한 의미분석으로 까지 논의를 진전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이는 극히 한정적인 소재만을 가지고 논의를 전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문화적 전승배경에 대한 논의가 개연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김병국, 『박혁거세신화의 상징연구』, 성균관대 국어국문학 석논, 1984, p.55.
- 김상일, 『카오스와 문명』, 동아출판, 1995, pp.75-77, p.391.
- 김열규, 『한국의 신화』, 일조각, 1976, p.138.
- 김용옥, 『여자란 무엇인가』, 통나무, 1997. p.135, p.186.
- 김태곤, 『무속과 영의 세계』, 한울, 1993, p.113.
- 김현선, 『저승을 여행하는 여신연구』, 『비교민속학』 33집, 비교민속학회, 2007, p.162, p.167.
- 노성환, 『한일왕권신화』, 울산대출판부, 1995, p.117.
- 박용숙, 『한국의 미학사상』, 일월서각, 1991, p.31, pp.39-41.
- 이이화, 『한국사이야기 2권-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를 찾아서』, 한길사, 1998, p.115.
- 이지영, 『한국건국신화의 실상과 이해』, 월인, 2000. p.161, p.168, p.193, p.293, p.321.
- 장철수, 『옛무덤의 사회사』, 웅진, 1995, p.92, p.83, p.156.
- 장주근, 『한국신화의 민속학적 연구』, 집문당, 1995, p.113, pp.108-109.
- 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2002, p.375.
- 현용준, 『(개정판)제주도무속자료사전』, 각, 2007, p.552.
- 현용준, 『제주도 신화』, 서문당, 1996. p.1.

Abstract

A study of the corelationship of 'myth of Egg' and 'Myth of Gwe*'

Yang, Sung-Pil**

We can find 'Myth of egg' in the birth myth of a nation that has a story of hero who was born from egg. What is the 'Meaning of egg in Myth'? The egg in Myth is a element that makes background of hero's special birth. And when we divide the birth myth of a nation with a type, we do that the 'myth of hero from sky world' is belong to a category of myth from north region and the 'myth of hero born from egg' is belong to a category of myth from south region.

In this paper, I suppose the meaning of egg in myth from imaging ancient's thought and I suppose that the principle of birth life is affected in principle of creating world, ritual method of 'a shaman's exorcism(so we called Gud)', ritual method of 'Funeral ceremony', meaning of 'Siju-danji'. By the way, when I considered myth in Jeju, appearance of 'Gwe' in myth is not meaning for the birth of hero with special method, but meaning that is function 'transformation of being' and 'horizontal movement in world space'.

When I analyze the character of 'Gwe in myth' compare with 'egg in myth', the element of egg in myth is well combine with 'myth of hero from sky world', and the element of 'Gwe' in myth is well combine with 'myth of hero from sea world' also. Thus in this paper, I suppose that

* A gwe is box for keeping something important, that is made by wood usually

** Ph.D. candidate in Department of Koreanology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Gwe’ is not transform shape of egg in myth that is known and suppose that two types of myth is belong to another background of culture and is independent each other. The ‘myth of hero from sky world’, ‘myth of hero from sea world’, ‘myth of egg’ and ‘myth of Gwe’ are combined complex, so it made variable story of myth with correlation.

Key Words

Egg, myths of egg, myth of hero from sky world, myths of hero from sea world, Borning from egg, Chaos, Hangari

교신 : 양성필 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1동 1번지
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
(E-mail : archijeju@hanmail.net 전화 : 017-699-9151)

논문투고일 2009. 07. 17.

심사완료일 2009. 08. 11.

계재확정일 2009. 08. 14.